



다시 대한민국!  
새로운 국민의 나라

※엠바고 :

즉시 보도 가능

배포 : 2023년 11월 22일

## 한·영 정상,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

- 한·영 수교 140주년에 맞춰 양국의 사이버 협력 수준을 한 단계 격상 -

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월 22일 런던에서 리시 수낙(Rishi Sunak)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.

양 정상은 한·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방안을 담은 2023년 다우닝가 합의(Accord)와 함께 「한·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\*」을 발표했습니다. 이는 지난해 체결한 「한-영 양자 프레임워크\*\*」에서 사이버 협력을 별도로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양국 정상이 체결한 최초의 사이버분야 협력문서입니다.

\* Republic of KOREA-UK Strategic Cyber Partnership

\*\* 한영 정상은 지난해 6.30.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포괄하는 「한-영 양자 프레임워크」를 채택하고 정치·안보·경제 협력을 심화하면서,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음

이번에 한영 정상이 수립한 ‘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’은 정치·경제·사회 분야에서 오랜 우방 관계를 이어온 양국이 사이버 협력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



<상호지원>에서, 양국은 악의적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공유 및 지원요청을 위한 공식채널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.

<협력체계>에서, 韓 국가안보실(NSO), 英 국가안보국(NSS)이 정례협의를 통해 同 파트너십을 관리·감독하고, 한영 외교부가 이를 실무지원하기로 했습니다.

한·영간 사이버 협력을 양국 정상이 최초로 문서화하여 체결한 것은, 그만큼 사이버 안보가 국가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 한 것입니다.

또한 북한을 악성 사이버활동의 주체로 명확히 적시하고 공동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고, 랜섬웨어 등 국제적 사이버위협 상황을 합동 분석하고 배후 규명에 노력하며, 양국간 사이버 훈련 상호 참가 등 실행력을 담보한 것이 특징입니다.

나아가, 한영 사이버 협력은 국내 민간기업의 사이버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, 영국의 보안시장 접근 기회가 확대되는 등 양국의 호혜적인 이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윤석열 정부는 이번 협력문서 체결이 Five-Eyes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, 향후 호주 등 여타 우방국들과의 협력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합니다. <끝>